

창업특강 저널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018038093 변유진

요즘 ‘창업’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는다. 학교에서든, 미디어에서든 그리고 일상의 어딘가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온다. 초반에 창업의 세계는 내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창업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 창업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겁고 생소했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창업이 더욱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특강 내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창업의 대표적인 순기능이기 때문이다. 취업으로부터의 도피처치고는 너무 많은 시간과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던 때도 있었다.

창업을 하는 기업, 즉 ‘스타트업’이 떠오르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언뜻 보면 이공 계열 전공자 이외에는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의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 않은 것도 같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관련된 무료 교육 콘텐츠가 넘쳐나고, 아예 관련 직종으로 취업까지 도와주는 전문 교육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배움의 길이 활짝 열려있으면서 ‘오픈 소스’의 문화로 누구든지 마음먹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서비스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IT 기반 서비스를 주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경우, 타 직종에 비해 초반에 요구되는 자본금이 적은 사실이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 생겨나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작년 말 코로나19가 처음 발병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나 또한 가볍게 지나갈 독감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이후에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실내 어느 공간에서든 발열 체크를 할 때 즈음 되어서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실감의 포인트는 ‘건강’이 아닌 ‘취업’이었다.

아직 3학년인 나는 코로나19가 취업 시장에 불러온 여파를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미디어가 나에게 사실을 직시하게 해주었다. 한번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된 이후에 코로나19가 왜 취업난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남들보다 1년 졸업이 늦는 나는 동갑내기 친구들을 통해 관련된 이야기 또한 자주 접하게 되었다. 당장에 졸업과 취업 전선에 있는 그들에 의하면, 자격증 시험과 어학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서 시험을 신청하는 것부터 경쟁률이 너무 강해졌으며 시험을 본다 한들 이미 일정에 많은 차질이 생겨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대다수 직종의 채용 인원 및 TO가 전반적으로 감축된 듯하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서 해당 특강에서는 유망 분야로의 창업을 제안하고 있다. 유망 분야는, 언택트(Untact)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서 전망이 밝은 분야를 의미했다.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나의 전공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망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안도감을 느낌과 동시에 곧 레드오션이 될 거라는 불안감도 느껴졌다.

앞에서 창업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에 모순되게도, 현재 나는 이미 창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에서 주관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꽤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당시의 나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는 중에 무언가 갈증을 느꼈다. 1학년 때의 내가 생각한 3학년과 현재 3학년인 나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간의 괴리감을 느꼈다. 나 자신을 다양한 환경에 처하도록 하고, 많은 경험을 겪게 될 상황에 들여놓고자 했다. 약 반년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 그 결과가 좋은 나쁜 것 간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의 나보다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또한, 나에게 있어서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창업을 어떻게든 체험해보고 싶었다. 왜 다들 창업을 언급하고 강조하는지 알고 싶었다.

감히 도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책임을 질 것도 없고 사비가 투입되지도,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지도 않아 누군가에게 ‘나 창업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민망한 것도 있다. 창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내가 창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대학생의 신분으로 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작하고 배포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나름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있는 중이다. 꽤 견고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나와 팀원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찌르고, 결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는 창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감히 우스갯 소리를 하자면 약간 경영학도가 된 느낌이 든다. 우리 팀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임을 일러주셨고, 단순히 경험 쌓는 것을 목표로 하던 우리 팀은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전공 강의에서의 단순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거 같다.

동년배들과 창업해보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껏 진행해오면서 가끔씩 벅차게 느껴질 때는 있었다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누군가 창업을 고민한다면 해 보라고 권유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창업 아이템에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도전해보라고 조언을 덧붙이고 싶다. 창업을 권장하는 분위기인 만큼 자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를 잘 활용한다면 잃을 것 없는 게 창업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구직 활동에 있어서 창업 이력이 스펙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창업으로부터 얻은 ‘실패 경험’ 혹은 ‘성공 경험’은 분명 본인 자체를 성숙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주저않고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들로 인한 나비효과로 더욱 좋은 영향이 있길 기대한다.